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서의 조경설계 교과목 수업계획서 분석과 개선방안[†]

김아연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Analysis of Syllabi for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Courses as Project-Based Class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Kim, Ah-Ye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A syllabus can be considered to be a masterplan for good educational results. This study t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and suggest improvement strategies for better landscape design cours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llabi of mid-level landscape design studio classes collected from the four-year undergraduate programs. The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a syllabus as a contract as well as a plan and a learning tool. Second, it is crucial to make more detailed stat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learners. Third, more customized components for design courses should be developed; the syllabus should give the structure of a design class as an integration and synthesis of other cours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interrelationship and relevance among the components, especially between course objectives and evaluation criteria, and course activities and references. Fifth, a syllabus needs to function as a communication tool in a flexible manner. Sixth, a syllabus needs to give a comprehensive information about the site and the design project. Finally, instructors need to introduce a set of detailed evaluation rubrics or criteria acceptable to stu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evaluation.

Key Words: Instruction Design, Landscape Design Education, Studio Pedagogy

국문초록

조경교육의 핵심인 설계 교과목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는 수업계획서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과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의 2, 3학년 수준 조경설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분석하여 설계교육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수와 학생 사이의 계약서이자 학습활동 과정의 설계도와 학습 도구로서의 수업계획서 기능 제고가 절실하다. 둘째, 수업계획서에서 담아야 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Ah-Yeon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Korea, Tel.: +82-2-6490-2845, E-mail: ahyeonkim@uos.ac.kr

서술의 구체성을 높여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스튜디오 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업계획서의 세부 항목 개발과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며 타 과목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계스튜디오의 통합적 측면을 조망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설계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 외의 다양한 수업 매체와 온라인 방식의 도입을 통해 쌍방향 소통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업계획서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업목표와 평가기준간의 관련성, 교재 및 참고문헌과 주차별 수업활동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주제어: 수업설계, 조경설계교육, 스튜디오 교육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실천은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고 있다. 조경학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부적으로는 대학 구조개혁의 압박을 받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조경업 자체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교육 개혁의 중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 개혁은 외부적인 압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경학 교육의 교과과정 변화와 수업 개선을 통해, 즉 조경교육 주체들의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조경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진단(Kim, 2010; Joo, 2014)과 쟁점 제시(Kim, 2015), 그리고 교과과정 개선(Hong, 2006; Byeon *et al.*, 2015)의 개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수업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조경설계업의 불황을 계기로 조경설계를 중심으로 하는 조경학과 교과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핵심 종합과목으로서의 설계 교과목이 학생들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Kim, 2015), 학점과 스펙에 집착한다고 학생들을 탓하기 전에, 교수자 스스로 설계 교과목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설계 교과목이 조경학과의 교과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과 요청에 맞게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에 맞는 교육 방법을 탐색해야 하며, 그에 맞는 수업 운영 전략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공간환경을 다루는 조경 분야에서 좋은 설계도가 좋은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설계도가 부실할 때에는 최종작품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혼란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좋은 계획, 실행, 그리고 결과 사이의 내재적인 인과관계는 공간환경 전문가를 양성

하는 조경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적 차원에서 좋은 설계도는 잘 짜여진 수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수업계획서는 대학 수업(college teaching)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전략 중 하나이다(Yun and Seo, 1994; Cooper and Cuseo, 1989, Matejka and Kurke, 1994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1970년대 실험대학 선정의 조건 중 하나로 수업계획서 작성 항목이 포함되면서 대학별로 수업계획서 작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체 '표준수업계획서' 양식을 보급하였다(Jeon, 1995). 또한 최근 대다수의 대학들은 행정시스템의 전산화를 통해 온라인 표준수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수업계획서의 보급은 오히려 형식적인 수업계획서의 보편화로 이어졌다(Jeon, 1995). 흔히 행정문서로 간주되는 수업계획서는 교육 방법론에 대한 탐구와 수업 비평 등을 통해 작성되기보다는 교수자가 학생 시절 배웠던 수업이나 학과의 관례로 내려오는 수업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Lee, 1989).

수업계획서 분석을 통하여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내외 수업계획서 비교 분석(Choi *et al.*, 2013), 교육학에서 수업계획서에 대한 관심 수준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Kang and Lee, 2013), 국내 30개 대학의 창의성 관련 수업계획서 분석을 통한 창의성 교육 실태 분석(Choe *et al.*, 2012)과 같이 수업계획서는 현재의 대학 교육 실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수업계획서 분석을 통해 수업설계의 구조와 내용, 교수자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인식, 좋은 수업의 조건과 수업계획서의 모형 등이 도출되고 있다. 한편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대안적인 방식에 대한 연구도 이어져 왔는데, Kaplan and Renard(2015)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계획서의 틀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교수자가 수업계획서의 초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검토를 통해 조정된 내용으로 최종 수업계획을 확정함으로써,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관습에 비해 서로 수업 내용과 진행과정,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동의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호협력적인 학습 도구로서의 수업계약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컴퓨터 교육에서 진행된 연구 가운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변화하는 학습자의 수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하고 대응적인 강의계획서 체계를 제안하는 연구(Kim and Kim, 2009) 역시 면대면 수업을 전제로 하며 학습자별 차이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업계획서 분석은 조경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조경설계 교과목은 조경학 교과과정의 핵심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별 과목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수업이다.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설계교과목의 개선은 조경교육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업의 방법, 형식,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수업 계획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조경설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설계교과목 수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중심 설계 교과목 수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업계획 수립 및 수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범위,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틀 짓는 주요 연구 질문은 첫째, 수업계획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며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야 하는가, 둘째, 학습자 중심 수업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셋째, 조경설계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업설계 요소는 무엇인가, 넷째, 현재 국내 대학 조경설계 수업계획서 작성의 실태는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보다 나은 조경설계 수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설계 교과목 수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영역,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문헌 연구, 수집된 수업계획서에 대한 항목별 분석 및 결과 고찰, 그리고 수업계획서 개선을 위한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수업설계와 수업계획서에 대한 교육학적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또한 설계교과목의 특수성을 고찰하여 비구조화되고 통합성이 강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을 도출하여 분석의 틀을 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 분석의 틀은 정보영역, 구성요소,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3단계의 위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수집된 조경설계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적용하여 각 정보영역, 구성요소, 세부항목별로 빈도를 분석하고, 정보의 양과 구체성의 수준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설계 스튜디오 수

업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자 중심의 조경설계 교과목 수업계획서 구성을 위한 제안과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였다.

2) 연구범위

연구의 범위로 전국 4년제 대학 조경학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현재 대학별로 학과 명칭이 다양해지고, 학부제로 통합되어 조경 전공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으며, 학교간 통합, 대학 명칭 변경 등 변화가 많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조경학과”의 개수를 말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경 설계를 가르치는 학과/학부가 있는 4년제 대학은 39개로 파악되며, 이 중 26개 대학의 수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대학의 지역적 분포는 서울/경기권 대학 10개, 강원도 2개, 충청도 6개, 경상도 5개, 전라도 3개 대학이다.

조경학과 교과과정에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은 주로 계획과 설계 관련 교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과 설계 과목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학생들의 실습이 포함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설계 과목과 비교할 때 계획 과목의 경우 이론 중심의 강의 수업이 중심이 되거나 비중이 큰 경우가 많고, 수업의 목표나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산출물의 형식과 내용요소에 있어서도 차이가 적지 않다. 그 결과 연구 범위에 설계 과목과 계획 과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수업계획서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요소, 항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계 과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교수자 별 영향력의 불균등을 피하기 위해 동일 교수자가 복수의 설계과목을 담당하고 수업계획서의 항목과 내용요소도 비슷할 경우 한 과목으로 한정하였으며, 동일 대학이라도 교수자가 다를 경우 교수자의 특성에 따른 수업계획서 작성 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총 26개 대학에서 수집된 59개 수업계획서 중 47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에 포함할 교과목 명칭의 키워드는 “공원”, “녹지”, “오픈 스페이스”, “단지”, “조경설계”로 파악되었다.

3) 연구방법

조경설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1차적으로 각 대학의 설계과목 담당 교수자에게 이메일로 협조 요청을 구하였고, 2차적으로 각 대학의 조경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수강한 설계교과목 수업계획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수업계획서는 조사양식에 따라 구성요소와 항목별로 조사결과를 입력하였는데, 일차적으로는 수업계획서가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추가적인 설명이 없이도 이해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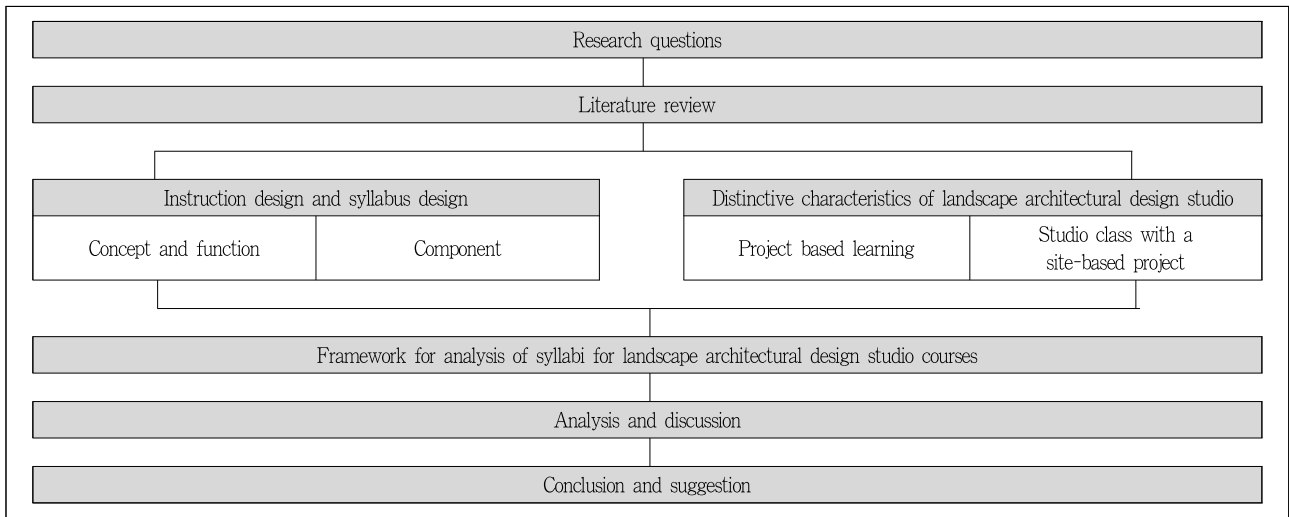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low

있고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할 만큼 구체성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설계 스튜디오 수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총 47개의 수업 계획서를 양식에 따라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해 특히 항목이 빠져있거나 서술에 있어 구체성, 스튜디오 적합성이 부족한 항목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고찰하였다(Figure 1 참조).

II. 이론적 고찰

1. 수업설계와 수업계획서

1) 개념과 기능

교수(teaching)는 교육의 공급자 측면에서 일방향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반면, 수업(instruction)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는 교수설계보다 수업설계(instructional design)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수업은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들의 집합체이며(Gagne *et al.*, 2005), 수업설계란 수업의 효과를 증진·개선시키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최적의 조건으로 구성하는 교수-학습 계획으로, 교육과정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수업설계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2000).

수업계획서는 이러한 수업설계의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강의계획서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강의라는 수업 형태가 대학 교육을 지배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수업계획서(syllabus)는 라틴어로 “목차(table of contents)”를 의미하는 *sittybos*를 잘못 표기한 것이 고착되어 syllabus로 통용되어 왔으며(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15), ‘강좌의 개요’라는 의미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확대되기 시작하였다(Parks and Harris, 2002).

수업계획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 매체로서, 강좌와 교수자 기본정보, 강좌개요, 수업목적 및 목표, 과제 및 수업 일정, 교재 및 수업자료, 수업진행방법, 평가방법, 강좌 규정, 학습도구 및 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문서”로 정의할 수 있다(Jung, 2007). Matejka and Kurke(1994)는 수업계획서의 기능을 계약서(a contract), 의사소통 도구(a communication device), 계획(a plan), 인지도(a cognitive map)로 제시하였다. 계약서로서의 기능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수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상호 동의한다는 법적인 문서로 기능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의사소통 도구적 측면은 교수자가 수업을 통해 의도하는 바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서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한 학기 진행될 내용과 방식에 대한 계획서의 역할과 더불어 수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궁극적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학습과 인지 지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Matejka and Kurke, 1994).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현장에서는 수강 신청 혹은 수업 첫 시간에만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Jung, 2007), 행정 서류를 뛰어넘는 수업계획서의 다양하고 풍부한 역할에 대한 이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성요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994)는 수업계획서의 주요 구성요소로 교과목명, 교과번호, 담당교수, 강의 일시, 학점 및 시간 수, 강의 장소, 수업의 목적 및 목표, 강의개요, 수업내용 및 진도와 관련자료, 수업방법, 평가방법, 수업준비사항, 과제물과 제출기한 및 평가사항, 주교재, 참고도서, 평가, 주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학 전반의 관

심사가 교수자에서 학습자로 이행됨에 따라 수업설계와 수업 계획서 작성에 관한 이론 역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할 것인가?”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Grunert O'Brien *et al.*(2008)는 학습자 중심 수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로 교수자 정보, 제출용 학생 정보, 교수자의 교육 철학, 교과목의 목적, 교과목 개요, 수업 목표, 교재 및 참고문헌, 학습지원 도구, 수업일정, 필수요구사항, 규정, 평가, 학점 산정절차,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제언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대학교육협회의 구성요소에 비해 학습지원 도구, 학점 산정 절차, 학습을 위한 제언 등의 항목이 학습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측면을 반영한다.

이처럼 수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정혜령(Jung, 2007)은 수업계획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자별로 수업계획서의 핵심 항목을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31개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종합하여 열 개의 상위 범주, 즉 기본정보, 교수자 개인정보, 강좌개요, 수업목적 및 목표, 교재 및 자료, 과제 및 수업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 강좌규정, 학습자원 및 도구에 따른 세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회는 1984년부터 1995년까지 대학교육에 있어 수업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업계획서의 구성과 우수수업계획서의 발굴과 분석, 공유를 여러 차례의 연구보고를 통해 제시하였다(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1994). 공모를 통해 접수된 수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팀은 12가지의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는데, 포함된 요소, 강좌개요 제시, 수업목적 제시, 교육내용 제시, 교육방법 제시, 교육자료 제시, 학습과제 제시, 평가계획 제시, 진도계획 제시의 적절성과 수업계획서 양식의 적절성과 더불어, 구성요소의 창의성과 실행가능성 등 평가범주 외에 수업실행의 수월성에 기여하는 특수한 측면도 주목하였다.

이와는 다른 접근으로 Lee and Park(2015)는 좋은 수업계획서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의 개념을 분석하여 다섯 가지의 핵심요건을 교수-학습 목표, 차시별 수업내용, 수업환경 및 관리, 학습과제 수행, 교수-학습 평가로 제시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시사점은 수업계획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연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것인데, 교육 목표와 방법 사이의 연계성, 그리고 주차별 수업 내용, 매체, 교재, 그리고 평가 방법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개별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항목간의 연계성과 정합성 역시 좋은 수업계획서 작성에 중요하다.

2. 설계교과목의 특수성과 수업계획

일반적으로 강의 중심 수업계획서가 스튜디오 방식의 수업

으로 진행되는 설계 교과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분석에 앞서 설계 교과목의 운영과 내용, 그리고 결과물의 관점에서 특수성을 조망하여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수업계획서를 양적,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설계교과목은 크게 운영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으로 진행되는 스튜디오 수업으로 볼 수 있으며, 내용과 결과물의 측면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설계안을 창출하기 때문에 과제와 평가에 있어 강의 중심 수업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1)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스튜디오 수업

스튜디오 수업은 대부분의 조경학과 설계수업에서 채택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본질적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를 통합하는 성격을 가진다(Tasker, 2011). 스튜디오 수업은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하며(Oschner, 2000), 이러한 대화를 통한 성찰과정이 디자인 전개와 학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Schön, 1985). 도제관계에서 출발한 스튜디오 교육은 이제 지식기반사회라는 사회적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최근 해외의 조경 설계 스튜디오는 다문화/국제 스튜디오, 커뮤니티 디자인사회의식과 사회봉사학습, 설계-시공 통합수업, 다과목 통합 프로젝트, 학제간 교류, 대안적 매체를 통한 접근, 학생들의 동료교수법의 도입 등으로 내용적/형식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스튜디오 교육방법론과 교육철학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제시되어왔다(Kim, 2015). 이 중심에는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제되어있다. 스튜디오 수업은 본질적으로 핵심지식의 습득과 이해, 이를 기반으로 한 실행에 이르는 특정 프로젝트를 다루게 되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기본적인 원칙은 스튜디오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틀을 제시해줄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여덟 가지로 제시되는데(Buck Institute for Education, <http://bie.org>), 그 구체적 내용과 수업계획서에 있어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Figure 2 참조).

첫째, 핵심 지식과 이해, 그리고 기술(key knowledge, understanding and skills)을 정의해야 한다. 특히 지식의 통합성과 현장적용성, 가치의 다양성이 높은 조경설계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획득하기를 기대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들(high-level cognitive thinking skills)은 다른 과목에서는 추구하기 쉽지 않으며, 통합과 적용에 관련한 핵심 역량을 수업 목표와 평가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교과목이 설계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수업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수업계획서에서 연계교과목과 선수/후수 과목을 제시하여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도전적인 질문과 문제(challenging problem or question)를 설정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정답(correct answer)이 아니라 맥락에 맞고 이해당사자들의 가치를 반영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해결책(acceptable solution)을 추구한다. 이 질문이나 문제는 정답이 없는 만큼 다양하고 열린 추구가 가능하지만 동시에 제시하는 대안의 타당성에 대해 제안자들이 증거나 근거를 찾고 제안해야 할 책임이 강조된다. 설계수업을 통해 설계안으로 제시해야 할 문제나 질문은 교수에 의해 제시될 수도 있고 학생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선정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수업계획서의 대상지, 주제, 설계과제, 초반부 수업 내용이나 활동 등의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과정(sustained inquiry)을 유도해야 한다. 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정답을 발견(discover)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해결책을 창안(create)하는 활동이며, 그 과정은 관련된 기존 지식이나 정보의 탐색, 문제나 쟁점을 둘러싼 맥락에 대한 이해, 다양한 대안의 수립과 비교,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설계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최종 산출물 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업계획서는 설계과정이 끝이 없는 탐구과정(endless inquiry)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최선의 해결책(acceptable best solution)을 찾기 위해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구조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특히 피드백의 횟수와 평가기준의 구체성, 평가기준의 수업목표와의 정합성은 이러한 탐구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Grunert O'Brien, et al., 2008).

넷째, 실제 세계와의 접촉과 경험(authenticity) 기회를 마련

해주어야 한다. 조정설계 수업은 대부분의 경우 실제 세계의 대상지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예산, 인력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창안하는 데 필요한 경험에 참여하고, 스튜디오에서의 작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대상지의 선정, 현장답사 일정과 횟수, 실무 전문가와의 연계방법, 사례연구 등을 수업계획서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생들의 관심과 선택(student voice and choice)을 존중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바탕이 되는 교육철학은 이 모든 과정에서 교수자보다는 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권장한다. 면대면 수업방식을 취하는 설계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교수자와 학생은 위계적인 구조로 인해 상호 협력적인 관계보다는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Ward, 1990; Till, 2005; Kim, 2015). 교수자는 학생들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교육철학을 학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적 측면은 수업목표, 평가 기준, 그리고 수업방법과 주차별 활동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경험한 것에 대한 성찰 과정(reflection)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설계과정은 “성찰적 실천(Schön, 1985)”을 통해 진행되며 강의 중심수업과 비교할 때, 프로젝트 기반의 스튜디오 설계 수업이 갖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설계과정에서 대상지의 맥락과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은 일회적이거나 직선적인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과정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이며,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직관적이다. 이런 성찰의 과정이 갖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성격은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낳는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비선형적 진행이라는 설계과정의 성격을 교과목 개요, 수업내용, 혹은 유의사항을 통해 학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피드백 과

Eight essential elements of project-based learning*	Key knowledge, understanding, and success skills	→	Concrete statement of objectives and relevance to learning contents	Implications for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studio syllabus
	Challenging problems and questions	→	Clear description of design assignment and its relevance to course objectives	
	Sustained inquiry	→	Critique, consultation, feedback system	
	Authenticity	→	Field trip, meeting with local residents, practitioners and other experts, provision of outside resource list	
	Student voice and choice	→	Methods of student participation	
	Reflection	→	Supportive means to help students' self-learning	
	Critique and revision	→	Provision of design review rubric	
	Public product	→	Application of design products and discussion	

Figure 2. Eight essential elements of project-based learning and their implications for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studio syllabus

* Source: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http://bie.org>

정을 도와주는 별도의 면담, 학습지원도구 등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곱 번째, 비판적 검토와 수정 보완(critique and revision)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설계수업에서 비판 혹은 비평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설계안의 장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시한 해결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한계 범위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제안을 정당화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비판의 주체는 교수자와 평가자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 수업활동에서 설계안에 대한 학생들의 비평과정을 도입하거나, 평가에 있어 또래 평가를 시도하는 방안, 팀작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비판의 준거가 되는 평가기준(rubric)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공유(public product)하는 과정이다. 설계형 프로젝트 수업에서는 최종 결과물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과물인 최종설계안은 프로젝트의 수행과정, 학생들의 주요한 발견 내용,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제안하고자 하는 해결책,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의미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결과물의 활용방법과 평가에 동료 학생들의 토론을 독려하고, 잠재적 이용자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다 넓은 맥락에서 학생들의 결과물이 토론되고 공유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업에서 주는 것은 학습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할 수 있다.

2) 설계 과정과 설계 결과물의 특성

4년제 대학 학부 중급 레벨인 2, 3학년의 수업에서 다루는 설계 작품은 특정 대상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방향과 개념 설정, 대안 검토, 형태 부여, 세부 공간 설계 등 문제의 발견과 정의에서부터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설계적 대안을 찾아가는 비선형적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수많은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넷 자료, 도면 자료, 영상 자료 등을 폭넓게 접해야 하며, 학생 작품의 방향에 따라 개인별, 팀별로 접하는 자료와 조사의 종류는 차별화된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지원도구와 다양한 유형의 참고자료와 웹사이트를 제시하여 설계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학습 지도를 제시해주는 것이 수업계획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외부 이미지들을 참조하거나 활용하게 되는데, 특히 인터넷에서 수많은 이미지 자료를 다운받아 쓰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른 이론 수업과는 달리 학문적 정직성과 표절의 문제를 이미지 자료와 연관지어 학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형 제작, 컴퓨터 모델링, 이미지 합성 등의 다양한 물리

적 장비와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진행 과정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지원 도구를 명확히 제시하여 학생들의 혼선을 최소화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퀴즈와 시험이 아닌 설계 결과물 평가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과 구체적인 평가 준거를 수업계획서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III. 분석의 틀

수집된 수업계획서의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함된 항목의 내용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진행과 학습자들의 준비를 지원할 만큼 충분히 구체적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틀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수업계획서의 일반적인 핵심 구성 요소를 토대로 하며, 둘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조경설계 스튜디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먼저 수업계획서의 일반적인 핵심 구성요소는 정혜령(Jung, 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11개 영역과 32개 구성요소의 체계를 준용하되, 일부 항목을 합쳐 단순화하였다. 11개 영역 중 교수자 기본정보와 교수자 개인정보를 교수자 정보로 통합하였고, 이를 기본 정보의 하위범주로 포함시켜 총 9개로 조정하였다. 이러한 9개의 범주를 정보의 종류에 따라 기본정보, 수업정보, 평가정보, 지원 정보의 상위 영역으로 묶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성요소에 조경설계 스튜디오의 특수한 사항인 대상지, 스튜디오 과제, 작품평가기준, 협업과 팀작업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수업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핵심 사항 여덟 가지와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용적 분석을 위해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우수수업계획서의 세부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각 항목별 내용 파악과 더불어 각 항목간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질문을 도출하여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기본정보, 수업정보, 평가정보, 지원정보의 4개 영역을 설정하였고, 기본정보에는 교과목과 교수자에 대한 세부항목 11개, 수업정보는 교과목의 개요, 목표, 주차별 수업내용,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세부항목 11개, 평가정보에는 성적평가와 정책에 관한 세부항목 6개, 지원정보에는 참고 문헌과 자료출처에 관한 세부항목 4개 등 총 32개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수업계획서 분석을 위한 4개의 정보영역, 9개의 구성요소, 32개의 세부항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Figure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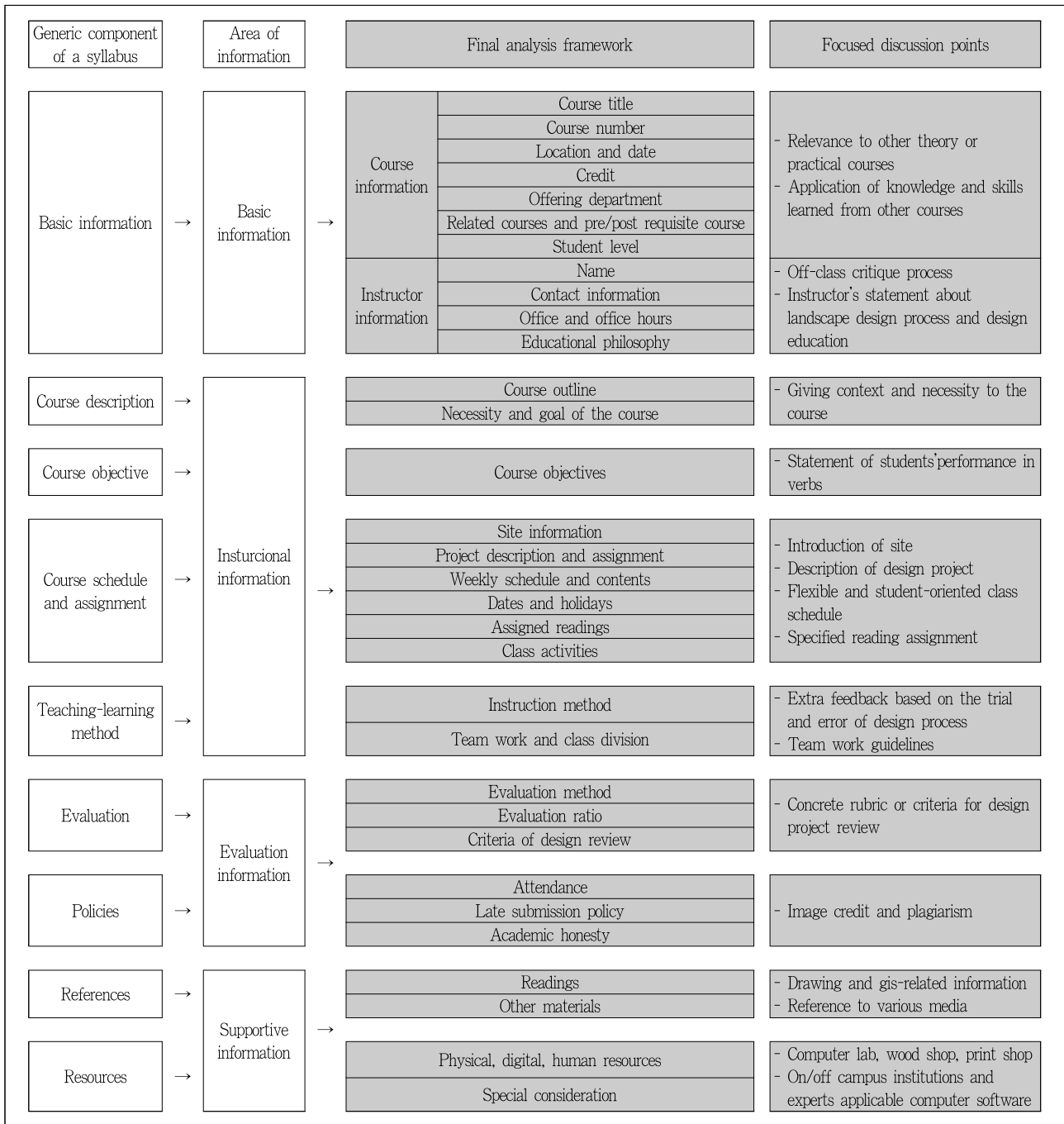


Figure 3. The adjustment of analysis framework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course syllabi

IV. 분석 결과 및 고찰

구성요소와 항목 분석에 앞서 수업계획서 전체 양식과 분량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표준양식을 사용한 경우가 47개 중 31개로 60%를 차지하였다. 수업계획서의 분량은 한 쪽 10개, 두 쪽 13개, 세 쪽 11개, 네 쪽 3개, 다섯 쪽 7개,

여섯 쪽 이상 2개로 나타나 평균 2.8 쪽으로 파악되었다. 두 쪽 이하인 경우가 23개로 48.9%에 달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목 별로 키워드만 제시하거나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수업계획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준계획서를 활용한 경우 기본정보를 제공하는데 편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학별로 개발한 표준수업계획서 자체가 수업계획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하

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Jung, 2007), 표준 양식의 비판적 활용과 설계 수업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설계 교과목 수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정보영역, 구성요소, 세부항목 별로 포함 여부를 빈도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32개 항목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16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수업계획서는 25개로 약 53%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조사된 수업계획의 약 절반(47%)

1. 영역별, 구성 요소별 세부항목 빈도 분석

Table 1. Frequency analysis of syllabus component (n=47)

Area		Component	no (%)	
Basic information (기본정보)	Course	Course title	47 (100.0)	
		Course number	34 (72.3)	
		Location and date	28 (59.6)	
		Credit	37 (78.7)	
		Offering department	30 (63.8)	
		Related courses and pre/post requisite course	7 (14.9)	
		Student level	20 (42.6)	
	Instructor	Name	47 (100.0)	
		Contact information	39 (83.0)	
		Office and office hours	11 (23.4)	
Educational philosophy		2 (4.3)		
Sub-mean		27.5 (58.4)		
Instructional information (수업정보)	Course description	Course outline	43 (91.5)	
		Necessity and goal	11 (23.4)	
	Objective	Course objectives	32 (68.1)	
	Course schedule and assignment	Site information	4 (8.5)	
		Project description and assignment	13 (27.7)	
		Weekly schedule and contents	46 (97.9)	
		Dates and holidays	18 (38.3)	
		Assigned readings	5 (10.6)	
	Teaching-learning method	Class activities	32 (68.1)	
		Instruction method	Instruction method	41 (87.2)
			Team work and class division	6 (12.8)
Sub-mean		22.8 (48.5)		
Evaluation information (평가정보)	Assessment	Evaluation method	37 (78.7)	
		Evaluation ratio	43 (91.5)	
		Criteria of design review	5 (10.6)	
	Policies	Attendance	6 (12.8)	
		Late submission policy	5 (10.6)	
		Academic honesty	4 (8.5)	
Sub-mean		16.7 (35.4)		
Supportive information (지원정보)	References	Readings	44 (93.6)	
		Other materials	12 (25.5)	
	Resources	Physical, digital, human resources	8 (17.0)	
		Special consideration	15 (31.9)	
	Sub-mean		19.8 (42.0)	
Total-mean			22.9 (48.7)	
Format	University standard format		31 (66.0)	
	Average page(A4)		2.8	

*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추후 혹은 별도 자료로 배포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해당사항 있음으로 간주하였다.

이 바람직한 수업계획서가 갖추기를 기대하는 항목의 절반 이하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항목 별로 살펴보면 47개의 모든 수업계획서가 제시하고 있는 항목은 교과목명과 교수자명의 2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주별학습계획(46개), 교재와 참고문헌(44개), 교과목 개요와 평가비율(43개), 교수자 연락처(39개), 평가방법과 학점수(37개)가 다른 항목에 비해 포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항목을 기술한 수업계획서에는 총 26개(81.3%) 항목에 대해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32개 항목이 모두 필수적이라거나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빈도만으로 수업계획서의 수월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 구성요소나 세부 항목 중 누락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구조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정보영역 중에서는 기본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업계획서가 평균 27.5개(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업정보(22.8개, 48.5%), 지원정보(19.8개, 42.0%), 평가정보(16.7개, 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보영역 수준에서의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개의 구성요소와 1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기본정보의 경우 전체 빈도 평균은 27.5개로 전체 수업계획서의 58.4%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교과목 이름과 교수자 이름이 모든 수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육철학(2개, 4.2%), 선수-후수과목에 대한 정보(7개, 14.9%), 교수자 면담가능시간(11개, 23.4%)에 대한 정보는 매우 드물게만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4개의 구성요소와 11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업정보 영역의 경우 전체 빈도 평균은 22.8개로 전체 수업계획서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8.5%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 중에서는 주차별 수업내용(46개, 97.9%), 교과목 개요(43개, 91.5%), 교수학습방법(41개, 87.2%)이 거의 대부분의 수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에 비해 대상지 정보(4개, 8.5%), 주차별 참고문헌(5개, 10.6%), 팀작업과 분반 규정(6개, 12.8%)에 대한 정보는 매우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2개의 구성요소와 6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평가정보 영역의 경우, 전체 빈도 평균은 16.7개로 전체 수업계획서의 단지 35.4%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비율(43개, 91.5%)과 평가방법(37개, 78.7%)에 대해서는 많은 수업계획서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나머지 4개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빈도가 10% 내외에 머물러 항목별로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2개의 구성요소와 4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지원

정보 영역의 경우, 전체 빈도 평균은 19.8개로 전체 수업계획서의 42.0%가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참고문헌으로 44개(93.6%)의 수업계획서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설계 수업의 특성상 요구되는 관련 자료 정보(8개, 17.0%)나 유의사항(15개, 31.9%)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정보영역 중에는 평가와 관련한 정보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항목 중에서 가장 간과되고 있는 항목은 '교육적 신념'과 '문헌 외의 기타 참고 자료'(2개), '학문적 정직성'과 '대상지 정보'(4개)였고, 작품세부평가기준과 과제제출규정(5개), 출석규정과 팀작업 및 분반 규정(6개)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설계스튜디오의 고유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과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담은 수업계획서는 13개(27.7%), 작품 평가 기준을 언급한 수업계획서는 5개(10.6%), 대상지 소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수업계획서는 4개(8.5%)에 그쳐, 전반적으로 스튜디오 수업의 운영과 과정 그리고 결과물 평가에 대한 특수성을 수업계획서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습자 중심 수업설계에서 중요시 되는 학습지원 도구나 학습을 위한 제언 항목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설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는 여전히 교수자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술 내용의 구체성, 적합성 분석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별 빈도 분석만으로는 구체적인 기술 방식과 서술 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서술내용이 구체성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및 조정설계 스튜디오 적합성을 중심으로 수업계획서를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정보(Basic Information)

기본 정보는 11개에 해당하는 항목 중 7개 항목을 전체 수업계획서의 50% 이상이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 설계 수업과 연계되는 이론 과목과 설계 과정에의 적용 방법, 해당 교과목의 선/후 과목 연계성 등 타 과목과의 관계를 언급한 사례는 7개(15%)에 그쳐, 전체 교과과정에서 교과목간 연계성, 통합성, 균형성을 탐색하는 수업계획서의 기능(Lee, 1987)은 낮게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선수과목은 해당 교과목 수강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학사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언급하지 않았으리라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설계교과목은 다른 이론 및 실습 과목들을 종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사 규정이라는 소극적인 해석을 넘어, 해당 설계교과목과 연계가 되는 이론 및 기타 실습 교과목을 설명하고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을 통해 조경학과 전체 교과과정에서 설계 수업의 위치와 기능을 판단할 수 있는 안내지도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사 규정으로서의 선/후수 과목 유무 여부보다는 연계과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계획서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방식으로 교수자의 교육철학을 드러냄으로써 그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Kang and Lee, 2013). 교수는 수업계획서라는 의사소통매체를 통해 조경설계와 관련한 교수자의 접근방법과 교육철학 혹은 신념을 표현함으로써 수업의 전체와 목표, 수업의 기대치를 학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수업계획서 중 단 2개에서만 교수자의 교육철학, 혹은 수업을 기획한 교수자의 신념이 언급되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인용하면, 교수는 설계수업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에 비유하면서 “설계행위가 학생들이 몸담고 있는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방법이며 3차원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형상화하는 창의적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배우는 일”에 해당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해당 교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직관성과 합리성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새로운 설계분야를 접함에 있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쉬운 학습과정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교수는 “교실의 권력이 말하는 자에게 있다는” 인용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며, 수업이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며 학생 스스로 권리를 찾으라는 독려를 담고 있다. 이러한 교수의 수업에 대한 개인적 서술은 학생과 교수 간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수의 교육적 신념은 수업 목표와 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보다 체계적이며 구성요소 간 정합성과 수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강좌 개요와 수업 목표(Course Description and Course Objectives)

강좌 개요와 수업 목표는 각각 43개(91.5%)와 32개(68%)의 수업계획서가 기술하고 있었으나, 교과목의 개요와 필요성, 목적, 그리고 수업목표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과목 개요는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과 진행 방식에 대한 서술, 수업 목적은 교과과정에서 해당 교과목의 역할,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업목표는 학습자가 수업의 결과로 할 수 있게 되는 기대 수행 역량을 진술한 것이다(Grunert O'Brien *et al.*, 2008). 즉 수업 목적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교육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진술인 반면(Gnolund, 1985, Jung, 2007에서 재인용), 수업 목표 혹은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성취해야할 역량 혹은 수행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다(Dee Fink,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수업 목표는 학습자의 행위 동사(verb)로 서술되어야 하며(Dee Fink, 2003), 건축학 인증에서 “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의 단계별로 제시되는 학생수행평가기준(Hong, 2006)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수업계획서의 필요요소라고 볼 수 있는 교과목 개요, 필요성과 목표 항목 사이의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묶어서 대체해 버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수업 목표가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의 설계 실습”으로 기술되어 교과목 제목과 동일한 경우도 있었으며, “도시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도시 조경설계방법론을 다룬다”처럼 내용적 측면과 목표가 혼재된 경우가 수업목표를 기술한 32개 중 12개(37.5%) 있었다. 또한 수업의 목표가 “이 과목을 통하여 조경디자이너가 갖추어야할 전문가적 능력과 소양을 터득시키고자 한다”처럼, “~교육한다”, “~평가한다”, “~하게 한다” 등 교수의 입장에서 서술된 경우도 32개 중 10개(31.3%)로 적지 않았다.

수업목표는 궁극적으로 평가기준과 강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즉 교수가 제시한 수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했는가를 평가해야하므로 이러한 수업목표와 평가 기준과의 정합성은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평가 기준 항목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교과과정 전체 구조 속에서 설계수업의 필요성을 조망하거나, 동시대 조경분야의 전개 양상 속에서 중요성을 서술하거나, 실무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술하거나,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능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서술은 11개로 21.3%에 그쳤다.

3) 수업 일정과 과제(Course Schedule and Assignment)

수업의 결과물이 설계 작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상지에 대한 소개와 기본 정보를 제시한 수업계획서는 4개(8.5%)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수업계획 표준양식의 틀에 갇혀 있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상지 정보는 한 학기 설계 프로젝트의 중요한 전제로서, 교수가 제공하는 베이스 도면과 같은 기초 자료, 웹사이트나 참고문헌 등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집하여 가공해야하는 자료 등이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업계획서 상에 대상지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과제와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지를 소개한 4개의 수업계획서는 대상지가 갖는 시사성과 해당 교과목을 학습하는데 있어서의 대상지로서의 적절성을 제시하였고, 특히 동일 과목의 과년도 대상지와 주요 성과를 제시하여 선배들의 작업들을 통해 당해 수업의 의미를 부각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기반 학습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도전적인 질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때, 대상지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과 설계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하는 질문들을 수업계획서에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제의 종류는 학기별로 한 개 혹은 두 개로 진행되는 설계 프로젝트와 주차별로 진행되는 수시과제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과제에 대한 개요를 소개할 수업계획서는 13개(27.7%)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과제의 목적과 수행 방식, 제출 기한과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제시된 경우는 2개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 수행 관련 정보는 평가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반적인 수업계획서에서 과제 관련 서술이 매우 부족하다는 기존의 연구(Jung, 2007; Lee and Park,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4) 수업운영(Instruction Management)

학생들은 교수자에 비해 학습활동에 대한 안내와 교수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정보를 중요시하며(Kang and Lee, 2013), 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원하고 있으며, 좋은 수업의 가장 우선적인 조건으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꼽는다(Seo, 2004; Jeong, 2010). 매주 정해진 진도를 학습하는 일반적인 강의 수업과는 다르게 설계수업은 개별 학생 혹은 팀별로 프로젝트의 수행과정과 속도가 상이하여 수업 운영에 있어서 주차별로 동일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비선형적, 학생 중심적 수업진행방식은 고정적인 수업계획서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Kim and Kim, 2009). 따라서 이런 불확실성한 측면을 수업계획서의 교과목 개요, 수업방법, 주차별 수업활동, 그리고 유의사항에 기술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준비를 도울 필요가 있다. 대개의 수업계획서가 강의, 토론, 답사, 데스크 크리틱, 발표 등과 같이 단어 중심으로 기술하는데 그쳐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묘사하는 구체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설계교과목의 경우 개인작업과 팀작업이 병행되거나 팀작업으로만 진행되는데, 팀작업 방식을 언급한 수업계획서는 6개(12.8%)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팀 구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감안할 때(Kim, 2010), 이에 대한 설명 역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수업계획서의 조건 중 하나가 수업목표와 수업방법의 연관성이 잘 나타나는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Grunert O'Brien *et al.*, 2008; Lee and Park, 2015)를 고려한다면, 수업방법을 앞서 제시된 수업목표와 연관지어 기술하는 것 역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평가(Evaluation)

평가는 직접적으로 성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이다. 수업설계(instruction design)에 있어서 학습목표를 수립하면 그 학습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Grunert O'Brien *et al.*, 2008). 평가는 규준참조평가(norm-referenced evaluation)와 준거참조평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자는 상대평가, 후자는 절대평가와 연관된다(Lee, 2004). 설계교과목의 경우 평가방법은 준거참조평가라고 할 수 있으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평가 측면에서 대부분의 수업계획서(43개, 91.5%)가 출석/중간 발표/수시과제/최종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 중간발표, 수시과제, 최종발표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준거를 제시한 경우는 5개(10.6%)에 그쳐, 여전히 결과물이나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는 교수자의 주관적이며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도제방식에서 비롯된 고전적 스튜디오에서 비롯된 평가자의 취향(taste)에 의한 주관적 평가의 전통(Lackney, 1999; Lee, 2006)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평가준거를 제시한 다섯 개의 수업계획서 역시 '독창성', '합리성', '완성도' 등의 키워드만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할 뿐, 어떠한 것이 독창적이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준거가 없으므로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평가에 있어서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정성의 부재와 교수자로부터 너무 적은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Jung, 2007)인데, 평가 준거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작품의 질을 판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준거와 수행 수준을 제시한 준거 척도"로 정의된다(Jung, 2007). 또한 평가는 해당 수업에서 중시하는 가치와 기대수준에 대한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Quinlan *et al.*, 2007), 학습도구의 역할로도 기능한다. 평가 방법과 준거를 수행 중심의 구체적 서술로 제시해야한다는 점은 수업계획서가 교수자의 입장에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Kang and Lee, 2013; Lee and Park, 2015).

특히 수업목표와 평가기준은 내적 연관성을 가져야하는데, 수업목표가 평가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수업계획서는 전무하였다. 학생들은 실제로 수업 목표에 개념의 명확성, 이론적 정합성, 창의성 등의 요소 또는 역량이 제시되어있더라도 작품의 시각적 표현과 언어적 발표가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며 그래픽의 수월성이 좋은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Quinlan *et al.*, 2007; Kim, 2010), 설계 수업의 목표와 평가기준간의 간극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비판적 능력과 결과물의 공유, 성찰과정이 중요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한두 번의 평가보다는 여러 번의 평가, 결과물 보다는 과정의 평가, 그리고 교수자 혼자 평가보다는 또래그룹, 혹은 학습자의 자기평가가 중요하며 학기 초에 어떠한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며(Grunert O'Brien *et al.*, 2008), 이러한 평가방법의 다양화와 준거의 구체화 및 공유과정

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교재 및 자료(References)

수업계획서에 소개된 교재와 참고문헌의 수는 적게는 전혀 없거나 한 개에서 많게는 61개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특히 열거된 참고문헌에 대한 내용적 소개가 없고, 영어로 된 교재가 많아 어떤 맥락과 어떤 주제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읽어야할지 단서를 찾기 어려웠다. 더욱이 주차별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교재의 범위 혹은 참고문헌을 나누어 제시한 경우는 단 5개(10.6%)에 그쳐, 의지와 역량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제시된 참고문헌을 수업과 연결지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고자료가 필요하고 유형별로 새로운 자료가 생산되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문헌 자료 외의 빅데이터, 도면 및 지리정보 자료, 영상 자료 등과 같은 기타 수업 자료에 대한 소개는 2개 수업계획서에만 나타나(4.3%) 다양한 매체활용에 있어 한계를 노출하였다.

7) 강좌규정과 학습자원 및 도구(Policies and Resources)

강좌규정에 해당하는 출석 관련 규정과 과제 제출 지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언급도 각각 6개(12.8%), 5개(10.6%)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8개 대학 400개의 수업계획서를 분석한 Jung(200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 다른 강좌 규정으로 학문적 정직성에 해당하는 항목은 단 4개에 나타났으나, 그 중 3개는 표준 수업계획서에 포함된 학교 전체 규정이었다. 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과제에 비해 설계 프로젝트는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운 측면도 있겠으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다룬다는 이미지를 무작위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학생 설계 과제에 있어서 정직성과 표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원과 도구는 학습을 돕는 도서관이나 연구소 같은 물리적 시설, 튜터링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같은 학습지원제도, 그리고 자문교수 혹은 실무 전문가, 수업조교, 멘토 등의 인적 자원에 해당하는데, 17%에 해당하는 8개 수업계획서에서만 조교의 실명이 거론되었을 뿐, 그 외의 학습지원도구나 인적 자원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조경설계 수업계획서에서는 잘 다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프로젝트는 실제 대상지를 다루기 때문에 지역 연구소와 관련단체,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정보가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습공동체나 튜터링, 멘토링과 같은 교내 수업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역시 언급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좋은 전문가가 좋은 수업을 통해 길러지고, 좋은 수업은 좋

은 수업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조경학과 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 연구 성과는 드물었다. 조경교육의 중요 교과목인 설계수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내재해 있는 교수자 중심주의를 벗어나 학습자의 관점에서 설계교과목의 수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계획서는 이러한 교육 개혁의 중요한 실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계획서는 교수자와 학생이 성공적인 수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해당 교과목의 학습 내용과 경로를 함께 설계해 가는 학습도구로서 가치를 더 증시하는 동시에(Grunert O'Brien *et al.*, 2008), 학습자의 요구, 사회의 변화, 교과목의 특성, 교육적 신념에 대한 교수자의 성찰을 요청한다(Jung, 2007).

본 연구에서는 수업계획서의 일반적 구성요소, 프로젝트 기반 스튜디오 설계 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항목, 한국의 대학 여건을 고려한 수업계획서 권고항목을 종합하여 4개 정보영역, 10개 구성요소, 3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개발하고, 현재 4년제 대학 조경교육의 2, 3학년 설계 교과목의 수업계획서 47개에 적용, 분석을 통해 설계 교육의 현 상황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설계 수업계획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교수자와 학생 사이의 계약서이자 동시에 설계도이며 학습 도구라는 관점(Parkes and Harris, 2002; Thompson, 2007; Jung, 2007; Kang and Lee, 2013; Lee and Park, 2015)에서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조사결과 표준양식을 사용한 경우가 47개 중 31개로 66%를 차지하였다. 모든 교과목을 아우르는 표준양식으로는 설계 스튜디오 수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학회 차원 또는 조경설계 교수자들 사이의 소통을 통해 조경설계 과목에 적합한 새로운 수업계획서 공통양식을 개발하여 시범적용하고 평가하여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수업계획서가 담아야하는 정보의 양을 늘리고 서술의 구체성을 높여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 분석된 국내 조경학과 설계교과목의 수업계획서의 약 절반(47%)은 전체 세부항목 32개 중 16개 미만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분량이 두 쪽 이하인 경우가 23개로 48.9%로 파악되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의 양이 불충분하고, 온라인 표준양식의 항목을 채우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설계 수업계획서는 학생들의 의사결정과 설계 프로젝트 사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스튜디오 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 수업계

획서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라기보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며, 한 학기 내내 중요한 안내도가 될 수 있는 학습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스튜디오 수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업계획서의 세부 항목 개발과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며, 타 과목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계스튜디오의 통합적 측면을 조망해줄 필요가 있다. 설계 스튜디오의 고유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설계과제(13개, 27.7%), 작품 평가 기준(5개, 10.6%), 대상지 소개(4개, 8.5%)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도 조사되어 특히 이들 설계 스튜디오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서술의 양을 늘리고 정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선행이수과목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기능을 종합·적용하는 프로젝트형 스튜디오 설계 수업의 본질을 고려하여, 조정설계 수업계획서는 조사분석론, 생태학, 계획, 식재설계, 지리정보체계, 컴퓨터 실습 등 다른 과목들과의 관련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조정설계 수업계획서는 유연하고 쌍방향적인 소통의 도구가 될 필요가 있으나, 전통적인 텍스트 중심의 문헌 자료 외의 빅데이터, 도면 및 지리정보 자료, 영상자료 등과 같은 기타 수업 자료를 소개하거나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매체와 연계한 수업계획서는 2개(4.3%)에 불과했다. 지식사회로의 변화과정과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의 선호를 고려한 인터넷 기반 참여형 수업계획서(internet-based participatory syllabus)를 도입한다면 설계과제와 대상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몇 년에 걸쳐 학생들의 활동과정과 결과물이 함께 축적될 경우 매우 효과적인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업계획서의 구성요소와 세부항목들 사이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수업목표와 평가기준, 수업목표와 수업방법,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 산물과 최종산출물과 평가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과 주차별 수업활동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수업목표와 평가기준이 일치하거나 내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는 전무하였다.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계성은 수업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유지하고, 교수자의 기대치와 학습 목표의 간극을 줄이며, 학습 도구로서의 평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조정설계 수업계획서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최종결과물에 대한 구체적 평가기준을 제시한 수업계획서가 10.6%에 그친다는 사실은 여전히 교수자의 개인적 재량에 따른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학생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공감이나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교수자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넘어서 수업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며, 과정평가와 결과평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동료평가와 교차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의 단위인 개별 교과목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수업계획서를 분석하여 조정설계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첫 시도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수업계획서와 실제 수업 사이의 일치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수업 진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이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설계 수업 진행 과정에서 수업계획서의 활용 방법, 학년과 교과별 특수성과 차별성, 그리고 계획 과목 등 다른 프로젝트 기반 수업과의 비교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References

1. Buck Institute for Education, <http://bie.org/> Accessed in 2015, 10.
2. Byeon, Jae-Sang, Seong-Ro Ahn, and Sang-Hyun Shin(2015) A methodology to develop a curriculum based on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Focused on methodology for ga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3(1): 40-53.
3. Choe, In-soo, Hwa-Sun Lee, Gun-Hee Lee, and Sun-Jin Kim(2012) A detailed analysis of creativity courses provided by prestigious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2): 179-199.
4. Choi, Sang-Ki, In-Ja Ahn, Younghee Noh and Ju-Sup Kim(2013) A comparative study on curriculum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based on the syllabi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and foreign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223-245.
5. Dee Fink, L.(2003) *Creating 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s*.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Inc.
6. Gagne, Robert M., Walter W. Wagner, Katharine Golas, and John M. Keller(2005) *Principles of Instructional Design*, 5th edition. 송상호, 박인우, 엄우용, 이상수 옮김(2007) Seoul: Thomson Learning Korea Limited.
7. Grunert O'brient, Judith, Barbara J. Millis, and Margaret W. Cohen (2008) *The Course Syllabus: A Learning-Centered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8. Hong, Youn-Soon(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andscape planning and design curriculum for practical practice: Using performance criteria of architectural education accredit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4(1): 81-91.
9. Jeon, Seong Yeon(1995) *University Curriculum and Courses*. Seoul: Hakjisa.
10. Jeong, Eun I(2010) Perceptions by teachers and students of good teaching at colleg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3): 25-44.
11. Joo, Shin-Ha(2014) Practitioners' perception of landscape education in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2(3): 13-24.
12. Jung, Hye Ryoung(2007) *An Analysis of Undergraduate Course Syllabus and Development of Models*.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Korea.
13. Kang, Seung Hae and G. Eun-Jun Lee(2013) A study of learners' usage and satisfaction by levels of perception of the course syllabus: In 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Studies*

- 44(1): 31-61.
14. Kaplan, David M. and Renard Monika K.(2015) Negotiating your syllabus: Building a collaborative contract.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39(3): 400-421.
 15. Kim, Ah-Yeon(2010) Students' perception of landscape design studio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2): 9-24.
 16. Kim, Ah-Yeon(2015) Issues of learner-centered studio classes in landscape architectural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3(1): 139-156.
 17. Kim, Ho-Sook and Hyoung-seok B. Kim(2009) Dynamic syllabus composition system considering the priority of educational objectives.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2(2): 13-22.
 18.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1994) Case Study of Good Syllabus, Research no. 94-1-13.
 19.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2000) Terminology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20. Lackney, Jeffrey A.(1999) A history of the studio-based learning model. retrieved from http://edi.msstate.edu/work/pdf/history__studio__based_learning.pdf in 2013, 10.
 21. Lee, Sang-Hun(2006) A study on origins of architectural design education and its transformation with focus on the development of design studio in a university setting. *Review of Architecture & Building Sciences* 22(3): 145-156.
 22. Lee, Seong-Ho(1987) The Purposes, Contents, and Application of a Syllabus. *Theories and Practices of University Syllabus Design*,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Report no. 87-1-31.
 23. Lee, Seong-Ho(2004) Curriculum Development and Evaluation. Seoul: Yangseowon.
 24. Lee, Wha Kuk(1989) Instruction design and syllabus for universities.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Workshop Proceedings. Report no. 89-6-6.
 25. Lee, Yongjin and Innwoo Park(2015) A concept-mapping approach to identify the education experts' perception of 'good syllabi'.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Methodology* 27(1): 1-20.
 26. Matjka, K., and L. B. Kurke(1994) Designing a great syllabus. *College Teaching* 42(3): 115-118.
 27. Ochsner, Jeffrey Karl(2000) Behind the mask: A psychoanalytic perspective on interaction in the design studio.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53(4): 194-206.
 28.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www.etymonline.com/> Accessed in 2015, 12.
 29. Parkes, Jay and Mary B. Harris(2002) The purpose of a syllabus. *College Teaching* 50(2): 55-61.
 30. Quinlan, Ann, Nancy Marshall and Linda Corkery(2007) Revealing Student Perceptions of Excellence in Student Design Projects. *ConnectED 200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sign Education*.
 31. Schön, Donald(1985) *The Design Studio: An Exploration of its Traditions and Potentials*, London: RIBA Publications Limited.
 32. Seo, Kyoung-Hye(2004) The perspectives and conceptions about good instructional practice: An interview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4): 165-187.
 33. Tasker, Tammy(2011) *Designing Landscape and Creating Selves: Learning in Design Studio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College of Education.
 34. Thompson, B.(2007) The syllabus as a communication document: Constructing and preventing the syllabus. *Communication Education* 56(1): 54-71.
 35. Till, Jeremy(2005) Lost judgement in E. Harder(Ed.), *EAAE Prize 2003-2005 Writings in Architectural Education*, (1st edition) Copenhagen: EAAE, 164-181.
 36. Ward, A.(1990) Ideology, culture and the design studio. *Design Studies* 11(1): 10-16.
 37. Yun, Hae-Geun and Min-Won Seo(1994) The selection and analysis of good syllabi.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Report No. 94-1-132.

Received : 12 January, 2016

Revised : 1 February, 2016 (1st)

17 February, 2016 (2nd)

Accepted : 17 February, 2016

3인익명 심사필